

學校文法論 序說

—文法教育의 方向—

李 吉 鹿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文法指導의 內容 |
| II. 學校文法の 性格 | (1) 學校文法の 領域 |
| 1. 學校文法の 由來 | (2) 文法指導의 水準 |
| 2. 文法教育의 性格 | 3. 文法指導의 方法 |
| 3. 學校文法과 理論文法 | (1) 文法指導體系作成의 形式的 方法 |
| III. 國語教育和 文法指導 | (2) 機會學習의 原理 |
| 1. 國語教育和 文法指導의 目標 | IV. 맺음말 |

I. 머 리 말

이 글은 문법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서, 문법지도체계 및 그 방법론 수립에 있어서 그것이 디디고 서야 할 원리를 찾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의 문법교육은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 문법지도가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분과로서의 기능을 잘 나타냈는가? 또한, 효율적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 주력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반성해 본다면, 중학교 문법교과서제가 주는 문법체계 교육의 폐단, 작문·독해지도와 유리된 문법교육, 문법지도의 수준문제, 문법지도체계 구성의 합리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문법 체계의 통일이라는 문제도 있다. 본래 학교문법은 피교육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법사실을 계획 지도하는 교육내용이므로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문법이다. 따라서, 그 체계와 용어는 교육적인 효용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시켜야 한다. 문교부 제정 학교문법 통일안이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더욱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위에 제시한 몇 가지 문제들은 우리나라 문법교단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제 해결의 기준과 원리가 될 문법교육의 성격과 그 기본 문제를 고구해 보려고 한다.

II. 학교문법의 성격

1. 학교문법의 유래

학교문법은 피교육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법사실을 계획 지도하는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 기술하는 학문적인 문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부여해 주는 데 그 목적을 둔 교육내용이므로 그것은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 교육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원래 문법연구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다. 서양의 문법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 했는데, 그 형태를 시초에 가지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 C)의 3 품사 분류에서부터라고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머(Homer) 문집(*Iliad*와 *Odyssey*)을 연구하기 위하여 명사, 동사, 영사(零詞, 접속사) 등의 3 품사¹⁾ 분류를 시도했다.

그는 논리학자이며, 이 세 개의 문법범주는 논리적 범주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학과 문법학과의 관련은 오랫동안 구라과 문법학에 흐르고 있었던 경향이며, 오늘날 까지도 이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문법을 발전시킨 것은 스토아 학파이고, 그들의 연구는 철학적 관점에 의거한 것이며, 품사의 구분을 더욱 진전시키고 격(格)의 분류 명칭 등을 붙였다.

Dionysius Thrax(120 B. C 경)도 스토아 학파의 업적을 계승, 회랍문법을 집대성한 사람으로서 고전연구를 목적으로, 곧 난해한 문이나 어귀를 독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헌학의 입장에서 문법서를 저술하고, 8 품사 체계를 수립했다.²⁾

1) Aristoteles 는 오늘날 문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문법 범주를 분석해 낸 최초의 문법가이며, 그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 했다. 곧, Onoma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 주어 또는 명사에 해당함), Rhema(진술하는 말, 동사), 그리고 Syndesmo(연결기능을 가진 말, 접속사, 지시대명사, 전치사등)의 3 요소를 설정 했다.

Cf, Sung-sik Cho: *An advanced English grammar* p. 442.

2) Thrax는 문법의 영역을 음운론과 형태론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8 품사 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는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 기술하는 것보다는 고전의 해독 이해를 위하여 쓰여진 실용적인 규범문법의 성격을 띠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규범문법(normative grammar)의 시발점이 되었다.³⁾

이와 같이 회랍 문법학자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곧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또한 규범적인 가치체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시대의 Latin 문법가들은 Greek 문법을 계승하여, Latin 문법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Varro(116—271)는 수사학 어원학의 학자인 동시에 Latin 문법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Donatus(330년경)는 북부 아프리카에 살던 성직자로서 Latin 문법가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grammar라는 명칭이 붙은 최초의 문법서를 쓴 것으로 유명하고, 그 저작이 바로 “Ars grammatica(art of grammar)”이며, 이 책이 중세기를 통하여 가장 정평있는 문법 교과서로 군림하였다.⁴⁾

Priscian(500년경)은 일찍 Constantinople에서 문법을 가르쳤으며, 그가 남긴 저작은 Institutiones grammaticae(Courses in grammar)로서 Latin 문법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이것이 영문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렇게 Latin 문법이 완성됨에 따라 중세기를 통해 Latin어 문법교육이 성행했으며, 동시에 Latin 문법은 구라파 전역에 큰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게 되었다.

특히 Latin 문법은 3학⁵⁾(trivium: 문법, 논리학, 수사학)의 하나로 학교 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시켰다.

① 명사(Onoma) ② 동사(rhema) ③ 분사(meloché) ④ 관사(arthron) ⑤ 대명사(antounmea) ⑥ 전치사(prothesis) ⑦ 부사(epirrema) ⑧ 접속사(surdesmos)

Cf. 최현배: 우리말본 p. 145.

3) Sung-sik Cho: 상제서 p. 444.

4) Donatus는 “Ars grammatica”에서 8품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동사 ④ 형용사 ⑤ 분사 ⑥ 접속사 ⑦ 전치사 ⑧ 감탄사
(로마 사람은 관사를 넣지 않고, 그리스 사람은 감탄사를 넣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Cf. Sung-sik Cho: 상제서 p. 445.

5) 3학(trivium)은 문법(grammar), 논리학(logic), 수사학(rhetoric)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중세기(Middle Age)에 있어서는 “quadrivium”으로서 산수(arithmetic), 기하학(geometry), 천문학(astronomy), 그리고 음악(music)을 들고 있으며, 이 일곱 가지 학문을 seven liberal arts로 불리고 있었다.

Cf. Sung-sik Cho: 상제서 p. 444.

이와같은 문법교육이 학교문법으로서의 전통을 세운 것이다. 곧 “문법은 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이라는 규범적 태도는 문법학의 이념이었다. 이렇게 해서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학교문법은 영문법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 받아 18세기 영어문법의 5부조직⁶⁾에도 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이라는 규범적인 학교문법의 이념이 엮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 까지는 art로서의 규범문법의 성격을 지녔고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언어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과학적인 학문문법이 등장하였다. 곧 19세기 초엽 Schlegel(1772—1829)의 비교문법을 비롯하여 Grimm(1785—1863), Bopp(1791—1867) 등의 비교언어학과 역사언어학이 언어과학으로서 각광을 받아 언어학은 진전 세분화 되었으며, 20세기 초 Saussure의 공시언어학, 현대의 미국 구조주의적 기술언어학의 발전을 보게 되어 이론 문법과 학교문법은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문법학이 언어과학의 한 분과로서 독자적인 순수학문 체계로서 군림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법의 발생은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으로서 출발했던 것이다. “문법(grammar)”이라는 어원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곧, Greek 어로서는 “grammatikē tecknē”이고, Latin 어로서는 “ars grammatica”인데, 이것은 art of grammar에 해당하는 말로서, grammatikē나 grammatica나 모두 grammata(That which is written or a written letter)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동사 graphein(=to write)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mmar라는 용어는 문자라는 뜻에서 나중 에 문자로 쓰여진 문헌을 읽어 내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Aristoteles가 Homer의 문학작품의 연구상 필요에서 문법술어를 발생시켰고, 언어학(linguistics)의 옛 명칭인 Phonology(문헌학)의 유래가 이와같은 고전연구의 필요성에 기인된 것은 모두 실용적이고 응용할 수 있는 가치에 기준을 두고 학문적 출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육으로서의 문법도 이와같은 이념을 지닌 것이며 그와 같은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으로서의 교육문법은 그리스로 소급하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학교문법이란 용어는 19세기 이후에 발전한 순수 학

6) Lindley Murray의 “Grammar of English language”(1795)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문의 문법영역으로 되어 있다.

① Orthography(정서법) ② etymology(어형론) ③ Syntax(구문론)
④ Prosody(운율론) ⑤ Punctuation(구둑법)

Cf. 김민수: 국어 문법론 연구 p.14.

문문법과의 구분을 위한 편의상의 용어에 불과하다.

2. 문법교육의 성격

문법교육은 국어교육의 한 분과로서, 국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법교육은 국어교육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국어교육의 어떤 면을 담당하느냐가 문제지, 그 귀일되는 바는 동일하다.

문법교육은 말을 매개로 한 이해 표현의 기능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문법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 가치를 가진 곧 언어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문법은 말을 운용하는 규칙이고, 이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터득하는 것이 문법교육의 바람직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교육은 언어생활에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응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칙적으로 터득시켜,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진면목이 있다.

그와 같은 응용의 가능성이 있는 법칙성은 물론 피교육자의 유추작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곧, 한 개의 법칙성을 알고 있을 때 같은 형식의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의하지 않고도 유추작용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이를 테면, “주어+서술어(꽃이 핀다)”의 기본형식을 이미 취학 전에 알고 있으며, 이 형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같은 문형을 무수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모국어룰 사용하는 국민의 언어 습득과정의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룰 사용하는 국민은 모국어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학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적 문법은 터득되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7) 인간은 6세경에 계획적인 지도없이 모국어의 습득이 가능하며, 모국어 통사구조의 기본요소가 아동에게 형성되어, 일정한 틀 안에서 무한한 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천적인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언어심리학자 또는 변형문법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다. 이런 관점에 입각한다면, 각급 학교별 문법학습의 내용 및 그 수준의 책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Cf. 牧野成一譯(R. Langacker 著)

言語と構造(大修館, 1971.7) p.11, p.227.

松浪有(大井上滋)共譯(O. Thomas 著)

英語教師の變換文法(松柏社, 1971.6) p.241.

이것은 아동들의 단계적인 정신 발달과 함께 초보적인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언어 능력이 획득되어 가는 것이다.

곧, 문법이란 언어법칙성을 무자각 속에서 터득하여, 국어의 이해, 표현 능력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것은 문법에 관한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의 언어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터득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모국어 문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또 다른 성격이 개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점을 들어 문법교육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문법교육은 무자각 속에 형성된 언어능력의 그릇된 부분을 시정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언어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 있다.

곧,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생활 영위의 능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가 문법교육의 당면한 문제요 관심사다. 이 “무엇”에 해당하는 문법교육의 내용이 곧 학교문법의 내용이 되야 할 것이다.

3. 학교문법과 이론문법

언어사회에 자연적 상태로 있는 언어현상 및 그 법칙성, 곧 언어의 선제적 체계가 있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 정리한 지식 체계가 있다. 전자는 문법이고 후자는 문법론(이론문법)이라고 편의상 구분한다면, 문법교육은 후자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를 교육하는 데 그 가치가 있음은 전향에서 이미 밝힌 바 뚜렷한 일이다. 따라서 이것이 학교문법의 내용이라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문법이 지닌 성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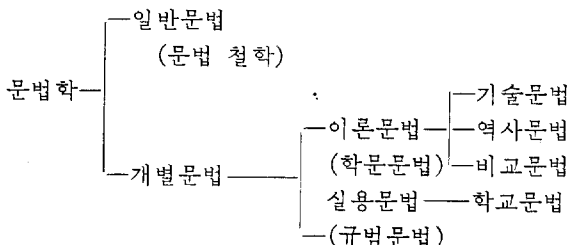
물론, 학교문법은 이론문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 정선된 문법 사항일수록 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법론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학교문법과 이론문법이 구별되어야 할 성질이 있다.

한개의 언어 사실이 문법론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갈래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문법교육(학교문법)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법 사실만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꽃이다”라는 언어 사실은 「명사에 “이다”를 붙이면 명사가 서술 기능을 가진다」는 문법사실은 그것 자체로서의 하나다. 그러나, 이론문법에 있어서는 “명사와 지정사” 또는 “이다”가 조사, 어미 등등으로 체계화되어 여러 학설이 문법론으로 성립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개의 언어사실이 문법학자 수만큼 여러 개의 문법학설로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문법, 곧 언어법칙은 오직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한 학설에 의한 체계에 의해서 지도할 수는 있으나, 그 체계 자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법칙, 곧 문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문법의 성격이 있다.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학교문법의 역사적 연원을 따진다면, 이것도 다음과 같은 문법학의 한 개의 부문이 될 수 있으나,



학교문법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의 개선 발전에 따라 점차로 순수 학문적인 계보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문법교육의 결과에 의해 초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론문법과 학교문법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전자는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언어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설명하고, 후자는 언어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적 방법론에 의거해서 옳고 그른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언어 규범을 설명한다.

따라서, 후자는 표준어나 정서법의 규정, 언어 운용의 규칙성에 더 중점을 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언어의 규범성에 치중하므로 언어의 시대적, 지리적, 사회적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곧 학교문법(school grammar)은 실용문법(practical grammar)과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의 성격을 띠고 있다.

Ⅲ. 국어교육과 문법지도

1. 국어교육과 문법지도의 목표(학교문법의 착안점)

국어교육의 기본목표는 국어를 매개로 한 이해와 표현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 된다. 문법교육은 국어교육의 한 분야로서, 그 지도 목표도 국어교육의 목표점 도달에 귀일한다. 따라서, 문법교육의 목표를 살피려면 국어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1) 국민학교의 국어교육의 목표와 문법지도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목표(일반목표)를 문교부제정 교육과정(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문교부 발행 1963.7.1)에서 살펴 보면

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의 경험을 넓히고,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 원만한 민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어 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길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③ 체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지식을 얻고 취미를 높이기 위한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④ 바르게 말하고 듣고 감상하는 습관을 길러 국어를 순화하는 자각을 가지도록 한다.

위의 4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이 가운데 ②항목의 목표가 문법지도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항목이라 생각된다.

문법지도는 국어과 4 영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 시키는 데 문법의식을 비롯하여 기본적 문법사항을 터득시켜야 할 것이다.

기본적 문법 사항이라는 것은 문법지식이 아니고, 국어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 ① 표준말과 사투리
- ② 존대말과 낮은말
- ③ 말의 차례와 글의 짜임
- ④ 문장 전개와 형
- ⑤ 문장 부호(, . ? “ ”)
- ⑥ 발음 (음가, 장단, 억양 및 발음법칙)
- ⑦ 문자 (한글, 로마자, 숫자, 한자)

등의 언어사실을 국어교육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안배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문법의식을 갖게하여 국어에 대한 자각과 나아가서 국어 순화에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곧, 말에 대한 자각을 높여 바른 언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습관 태도를 기르고, 또한 기본적인 언어 운용의 규칙을 터득하는 데 문법지도의 목표가 있다.

이것이 국민학교 문법지도의 개념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에 있어서 기회학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

법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법교육의 궁극의 목표는 말의 운용법칙을 터득하여 바르고 효율적인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다.

(2) 중학교 국어교육의 목표와 문법지도

문교부 제정 중학교 교육과정(1963.2.15. 공포)에 의하면, 중학교 국어과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중학교 국어과의 일반목표(중학교 교육과정 p.27)〉

국어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려면, 국어 학습지도의 대상이 되는 언어의 기능을 살펴보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여 나가는 데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① 언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서로 교섭하고 결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다. (사회형성의 기능)

② 언어는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언어 예술로서의 언어는 우리들의 인간성을 형성하며, 국민적인 사상 감정을 도야하는 것이다. (인간형태의 기능)

③ 언어는 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모든 학문이나 기술이 언어로써 표현되고, 전달 계승되는 것이다. (문학전달의 기능)

언어는 인간생활에 있어, 이처럼 깊고 넓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비단 학교교육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연히 습득되는 면이 크다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언어 습득의 체계를 세우고 보다 더 효과적인 언어 사용의 능력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데 국어교육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위에 든 언어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인 동시에 이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향상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언어의 체함과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국어 학습 지도의 목표에 대하여 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글짓기)의 네 부면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 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다.

② 자기가 한 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 ③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듣기; ①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

② 남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읽 기; ① 글을 읽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읽을 수 있다.

② 문학작품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③ 문장을 빨리 읽고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쓰 기; ①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분명하고 바르고 알기 쉽게 쓸 수 (글짓기) 있다.

② 읽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글을 쓴다.

③ 개인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국어 학습의 목표도 새 교육에 있어서의 모든 교과와 학습과 그러 한 습관, 태도, 기능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어학습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이며 능력인 것이다.

종래의 국어교육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너무나 언어 문자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모두 언어 사용의 기능으로서 학습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태도, 기능 및 능력을 길러 가면서 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감상력이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에 필요한 국어의 소양을 높여 건전한 사상을 기르게 함으로써 민주생활의 힘이 되도록 한다.

②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국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개성적인 표현에 익숙하게 하여 지식을 넓히고 취미를 높이기 위한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④ 정확하게 말하고 듣는 습관과 문학을 감상하는 힘을 길러 국어의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자각을 가지게 한다.

위의 목표점에서 요약된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효과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의 ②항에 문법교육의 착안 점이 있다. 따라서 문법지도는 국어교육 4 영역에 모두 상호작용하여 그 4 영역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 한 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국어과 내의 문법지도의 존립 이유라야 할 것이다.

(3) 고등 학교 국어교육의 목표와 문법지도

다시 고등학교 국어과의 일반목표를 문교부 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1963. 2. 15. 공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국어과의 일반목표(고등학교 교육과정 p. 30)〉

- (1) 세련된 국어의 교양을 쌓아 건전한 사상의 소지자로서 민주생활을 개선했을 수 있도록 한다.
 - (2) 정확하고 품위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높여, 유능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이해력과 표현력을 길러, 식견과 취미를 풍부히 하는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 (4) 정확하게 말하고 듣는 습관과 문학을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 국어의 이상을 높이도록 한다.
 - (5)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 한문 및) 고전에 대한 소양을 높인다.
-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목표를 다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 ① 남의 생활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 ② 자기의 생각을 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리고 능란하게 발표하도록 한다.
- ③ 언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성의껏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결정하는 버릇을 가지게 된다.
- ⑤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가지도록 한다.
- ⑥ 여러가지 독서기술을 체득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도록 한다.
- ⑦ 의사표시의 사회적인 방면으로서의 기술을 체득하고, 아울러 인생의 반영으로서의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 ⑧ 학생들이 장래에 사회에 나아가 언어생활면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책을 읽고, 취미를 기르기 위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 ⑩ 국민적인 사상 감정을 도야하도록 한다.

⑪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⑫ 국어에 대한 이상을 높이고, 국어 국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위의 ①항 ②항 ③항 ⑪항 ⑫항 등이 문법지도에서 착안해야 할 점이다.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국어과 지도 목표에서 문법지도의 목표가 될 항목을 적기(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준적인 발음, 어휘, 어법, 음조, 억양등을 충분히 익혀, 여러가지 말하기의 결점을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한다.

(지도목표 말하기 11 항: 교육과정 p.32)

② 우리말과 외국어의 구조를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점이 다른가를 연구하여 알도록 한다. (지도목표, 읽기 ㉔ 국어문제(2))

③ 국어 국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어 순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동상 (8))

⑤ 문법은 언어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 현대 국어의 체계를 알게 한다. (동상 (9))

그런데, 종래의 문법지도는 문법학을 교육하는 폐단이 있었다.

곧, 문법의 지식체계를 전수하는 것이 문법시간이었다. 그것이 비단 초보적인 문법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를 통한 이해와 표현에 직결될 수 있는 문법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곧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산 문법 지식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문법 지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곧, 문법을 위한 문법학의 교육이 아니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생활을 위한 문법 교육이라야 한다.

여기에 문법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설정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교육에 문법지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문법의식을 갖게 하고, 오용을 바로 잡는데 문법지도의 주안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문법지식을 갖게 하고, 그것은 또한 표현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곧, 실제의 언어능력을 구사하는 데 유용한 가치성을 가진 문법지식이라야 한다.

여기에 기능주의⁸⁾ 문법교육의 존립가치가 있다. 이 기능적 문법교육은 문

8) 기능문법: 기능문법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교육 방법론상 개념이요, 둘째는 순수 학문적인 문법관으로서의 개념이다. 교육 방법론상 기능문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육의 이념 및 방법론에서 나온 말이다. 새로운 교육은 구교육에서

법지도의 방법론적 관점이라 하더라도 문법지도 내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 기능적 문법은 유용한 언어능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시도하는 문법지도의 내용과 방법론적 관점이므로), 학교문법의 체계(문법교육 내용)도 그러한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2. 문법지도의 내용(학교문법 체계의 구상)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법교육이 있고, 문법교육의 목표를

하던 소정의 지식 또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을 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상에 살아 움직이는 곧 실용적 가치를 가지는 지식과 이해를 촉구시켜 자주적인 간을 기르려고 한다.

따라서, 생활의 구체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국어교육에 있어서도 언어, 문학에 대한 지식의 암기보다는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과 이해, 말과 인간과의 관계, 사회생활에 유용한 언어능력 등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관이다.

따라서, 단원 학습론이 기능적 교육관에 입각한 것처럼 국어 교육의 전개도 기능적 주제 또는 기능적 문법이라는 말을 쓰게 한 계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언어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하려는 것도 기능주의 교육관의 한 방법론적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능문법은 이와 같은 교육관에 입각한 방법론적 견지에서 편성된 문법교육의 지도 내용인 것이다.

문법학의 연구관점에서 생긴 기능주의 문법이론은 학교문법의 실용적 가치 체계로서의 기능문법과는 다르다. 이것은 구조주의 학파 등에서 외부적 형태를 중요시 하는 기술문법과 대치된다. 문법학의 임무는 언어현상의 객관적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법현상의 인유(因由)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연구태도이다.

이같은 연구태도는 역사적 연구 심리적 연구 뿐 아니라, 기능주의적 연구도 있다.

이 기능주의적 문법은 안리·프레(Henri Frei)의 오용의 문법(La grammaire des fautes, paris 1929) 속에 그 대표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언어에 있어서 정용(正用), 오용(誤用)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진정한 정용은 종래의 생각처럼 사회 일반적 규범에 맞추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능에의 적합의도(度)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은 표현성·명석성·언어경제 등, 곧, 표현과 이해에 가장 용이한 것을 말하고 있다.

보통 문법적으로 틀리게 표현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다수의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요인의 결과인 언어는 보다 광범한 각도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오용(誤用)이라는 특이한 언어현상의 원인을 기능적 관점에서 보고 구명하려는 문법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규범문법에 대립하여, 언어활동의 존재 이유인 욕구의 존재를 인증하고 검토하고 실현의 과정을 탐구하는 기능 언어학이다.

Cf. 국어학 사전(국어학회편, 1969. 1) p. 240, p. 461, ..829.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문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학교문법의 성격에 맞도록 그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문법은 학문문법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규범적이요 실용적인 문법이라야 함은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이것은 곧 실생활의 언어기능에 역점을 둔 기능문법이라야 할 것이다.

기능문법이라 함은 언어생활에 있어서 표현, 이해의 실천과정에서 문제해결의 가치를 가진 문법을 뜻한다. 이것은 기능주의 문법교육의 방법론에 입각한 문법지도 체계(내용)인 것이다.

문법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려면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 문법지도론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지도 방법론에 맞는 교육자료(교과서)는 기능문법이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문법은 무엇이 유용한 언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법 사항인가? 가 먼저 교육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또한 그 방법론상으로 문법체계를 먼저 가르치고, 그것을 응용케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문법사실(교육적 가치를 가진)을 가진 언어현상에 먼저 접촉 또는 관심을 갖게 하여 언어상의 법칙을 발견케 하는 귀납방식을 그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원 삽입제 또는 기회주의 문법지도 등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단원 삽입제이건, 기회주의 문법지도 방법이건, 그것은 모두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위치 지워진 지도 내용이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방법론이 문법사항들의 개별적이고 분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정한 목표 밑에 전체는 통합되어 일정한 계획속에서 실천되므로, 학교문법으로서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문법지도 체계의 내용 설정에 있어서 어떤 문법사항이 실제의 언어생활에 유용한 가치를 가질 것인가? 곧, 기능적인 문법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와같은 문법사항들이 학생들의 언어발달 과정의 실태에 비추어 얼마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느냐? 가 문제의 초점이 된다.

전자는 교육목적론에 입각한 것이라면, 후자는 교육심리적 방법론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 서야 학교문법 지도체계가 수립될 것이다.

문법지도 내용(또는 문법 교과서)의 구성은 교육과정의 더욱 구체화된 일부이므로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원리와 다를 수가 없다.

그것은 첫째 학생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문법사항, 곧, 문법학습의 범위

(Scope)를 설정하고, (문법지도 목표에 따라), 둘째는 이 Scope에 의해서 선택된 문법사항을 학습자의 발달단계(학년별)에 따라 학생이 학습하기에 용이하도록 일정한 순서에 맞도록 효과적 배열(Sequence)을 한다. 이와같이 문법지도 내용(또는 교과서)은 Scope와 Sequence에 의하여 조직되고 계열화해야 할 것이다.

(1) 학교문법의 영역

학문적인 문법론에 있어서도 그 연구영역은 변모를 가져왔다. 오늘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영역을 형태론(품사론)과 통사론(구문론)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옛날로 소급할수록 음운론이 포함되고 정서법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실용적인 교육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 기인함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학교문법의 성격에 비추어 그 영역을 잡는다면,

- ① 형태론 및 통사론(문법론) 뿐 아니라
- ② 음성학 및 음운론
- ③ 어휘론
- ④ 문자론
- ⑤ 방언론

등이 포함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언어학의 제반 분야에서 학교문법의 성격에 맞도록 정선해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곧, 독해와 표현에 유용성을 가진 사항을 선택하여 학교문법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문법지도의 수준

문법지도 체계, 곧, 학교문법의 내용은 학생들의 언어발달의 실태에 입각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초·중·고 별의 지도내용은 물론이지니와 각 학년별 지도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술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법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더 구체적으로 창의성있게 짜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선천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습득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곧, 6세경에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본능력이 형성된다면, 문법지도의 내용 및 그 수준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별 지도체계 편성에 대해서는 문법내용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학교에서는 ㉠ 발음, ㉡ 문자, ㉢ 어휘, ㉣ 문(주술관자), ㉤ 구두점

등의 기본사항들을 비롯하여 문법의식—말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바르게 말하고 쓰는 습관, 태도—을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하여 말의 법칙에 관한 지식과 이해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언어운용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는 연역식 지도방식도 바람직한 일이다.

인문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도목표에서는 “문법은 언어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 현대 국어의 체계를 알게 한다.”(동 교육과정 p.37)고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의 각급 학교별로 문법지도 단계에 있어서 그 주안점이 될 지도 수준을 ① 문법의식 ② 문법지식 ③ 문법체계 등으로 편의상 나누어서 말했는데 이것은 각기 독립된 사항이 아니고 상호 연관을 가진 것으로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永野賢 씨는 이 각급학교 문법지도 수준의 세가지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서 나타내고 있다.⁹⁾

문 법 체 계	高
문 법 지 식	中
문 법 의 식	國

3. 문법지도의 방법(문법교육의 원리)

(1) 문법지도 체계 작성의 형식적 방법

각급학교 문법지도 수준에 입각하고, 기능주의적 문법 지도관에 따라 그 체계 작성의 형식적 방법을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는 기회주의적 학습원리를 적용할 것이고, 중학교는 단원삽입제, 고등학교는 문법교과서제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원 삽입제도 일종의 교과서제이기는 하나, 문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교과서제보다는 기능주의적 방법론이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삽입제도 일종의 교과서제이므로, 교사나 학생이 학습계획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9) 永野賢：學校文法概說(朝倉書店, 1967.2) p. 219.

그러나, 전문가에 의해서 편찬된 교과서는 권위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에게 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안심감을 주게할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을 계획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실력과 창의력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과서만 충실히 다루면 어느정도의 교육과정의 요구에 부응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있어서도 기회주의적 문법지도가 기능문법의 방법론적 성과를 더 거둘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전체적 교육상황의 현실적 시점에서는 교과서 단원제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원 삽입식이나 문법 교과서식이나 이것 만으로 획일적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독해지도나 작문지도에 있어서 학생이 문법적 저항을 가질 때 수시로 기회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기회학습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2) 기회학습의 원리

기회학습은 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서(또는 문법적 저항을 가질 때) 출발하여 그들의 표현 이해의 언어능력을 부여하는 유용한 문법지식(언어지식)을 주고, 또한 그것을 터득시키는 데 그 본래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기회학습은 가장 구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학습이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언어의 법칙성을 깨닫게 하는 귀납적 학습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원리가 적용될 때, 학생들은 지식 이해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의 기쁨, 법칙발견의 기쁨, 그리고 실용적 가치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 효율적인 학습의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학습은 생각나는 대로 무계획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지도 체계 밑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단편적인 문법지식들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정리되고 체계화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기회학습의 계기는 독해지도와 작문지도에서 포착해야 할 것이다. 곧, 학생이 복잡한 문맥등 독해에 곤란을 느낄 때, 표기의 오용, 문의 성분관계의 불일치 등의 그릇된 표현에 임해서 문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맺 음 말

문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정신과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이에

입각하여 각급 학교별 문법지도 내용의 계열화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효율성 있게 편성하느냐? 하는 교육자료(교과서) 편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또한 이것을 실제 교단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효과적인 방법론 문제도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겠다.

(江原大・國語學)